

현대차그룹, '송창현 사의'에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빨간불'

〈AVP 본부장〉

송창현, 소프트웨어 R&D 이끌어
자율주행 분야 성과 저조 책임

현재 자율주행 수준 2단계 머물러
기술인재 확보 필요… 연말인사 주목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차의 핵심으로 주목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자율주행 개발을 이끈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R&D 조직에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소프트웨어 중심사(SDV) 등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R&D)를 지휘했던 송창현 현대차 AVP(첨단플랫폼)본부장(사장)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의선 회장님과 면담을 통해 현대차그룹 AVP 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직을 내려



Pleos SDV 스탠다드 포럼에서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놓게 됐다"며 사임을 밝혔다.

이어 "거대한 하드웨어 중심 산업에 소프트웨어 DNA를 심어 인공지능(AI) 기반 디바이스로서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도전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며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을 마주할 때마다 포티투닷 구성원들의 열정이 저를 버

티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송 사장이 자율주행 분야 성과가 저조한 데 따른 책임을 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R&D 조직은 물론 SDV 기술 개발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물론 중국의 완성차 기

업과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은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며 기술 우위 확보에 나서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국내에 '감독형 자율주행(FSD)' 서비스를 출시하며 새 격변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과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 로봇이 국내 복잡한 도심에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을 이어간다는 것을 검증했다. GM도 국내에 '슈퍼크루즈' 시스템을 내놓으며 자율차 경쟁이 불붙었다. GM의 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조건 아래 스티어링 ���을 잡지 않고도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차량 간 거리 유지, 교통 흐름에 따른 차선 변경 등도 자동으로 수행한다.

중국 자동차 회사인 바이두, 샤오펑 등의 자율주행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이 한국 진출을 예고한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현재 자율주행 수준은 국내 타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레벨 2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네시스 G90과 기아EV9에 레벨3급 'HDP(고속도로 자율주행 가능)'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도로 변수와 안전성 검증 문제 등으로 상용화 일정은 다소 보수적으로 조정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연말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이 그동안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첨단 기술을 무엇보다 강조해온 만큼 '기술 인재'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2027년부터 '레벨 2+'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고 이후 개발 중인 모든 기술을 적용한 SDV를 2028년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S일렉트릭, 북미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

부산 사업장 제2 생산동 준공
1008억 투자… 생산능력 3배 확대

LS일렉트릭이 부산 사업장 초고압 변압기 제2 생산동을 준공하며 북미 중심의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008억 원 규모의 생산동 증설로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흐름이다.

LS일렉트릭은 4일 부산 강서구 화전단에 위치한 부산 사업장에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호현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생산동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새로 완공된 제2 생산동은 연면적 1만 8059m²(5463평) 규모로 기존 1생산동 대비 연면적은 1.3배, 생산능력(CAPA)은 2.3배 수준으로 확장됐다.

이번 증설로 부산 사업장의 초고압 변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4일 부산 강서구 화전단 내 부산 사업장에서 열린 제2 생산동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압기 생산능력은 연간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154kV부

터 550kV급까지 전 라인업 생산 역량을 확보하게 되면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대응력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부산 사업장은 국내 유일의 초고압류 송전(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기지로, 이번 증설을 통해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능력도 강화됐다. 향후 정부의 HVDC 송전망 구축 사업이 확대될 경우 수요 대응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LS일렉트릭은 2010년 1생산동(2100억 원), 2011년 HVDC 전용 공장(1100억 원), 이번 2생산동(1008억 원)까지 총 4200억 원을 투입하며 부산 사업장을 초고압 전력기기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왔다. 올해는 북미 빅테크 데이터센터 배전 솔루션 공급과 초고압 변압기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존재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철거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 운영

삼성전자는 5일부터 고객이 새롭게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전에 맞춰 기존 가구장 철거부터 시공, 제품 설치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전자로지텍의 공식 가구 리폼 전문 협력회사를 통해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부터 냉장고·오븐 등 주방가전을 대상으로 가구장 리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매월 이용 고객이 약 50%씩 증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고객 호응에 힘입어 서비스 대상 제품을 확대하고 고객 혜택도 강화한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서비스 대상 제품을 '비스포크 AI 콤보' 일체형 세탁건조기, 원바디 세탁기·건조기, 드럼형 세탁기와 건조기 등 세탁가전까지 확대한다.

또 신규 구매 고객뿐 아니라 기존에 삼성전자 가전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도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대상도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고객에 새롭게 구매하거나 보유한 가전에 맞춰 기존 가구장 철거부터 시공, 제품 설치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가전 제품 형태와 배치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상부장 ▲수납장 ▲테이블장 ▲홈바 등 총 31 가지의 다양한 가구장 설치 옵션을 제공해 가전 제품이 놓이는 공간에 최적화된 맞춤 인테리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 '삼성 인테리어핏 설치서비스'는 1년간 AS를 제공하며 상부장 처짐 현상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무상 AS를 보증한다. 또한 철거 비용이 포함된 정찰 금액제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EO 등급 자재를 사용해 고객들이 한층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전자,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화 선도

'이클립스 SDV 커뮤니티 밋업' 주최

LG전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개발자 대회인 '이클립스 SDV 커뮤니티 밋업'을 한국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글로벌 비영리 조직인 '이클립스 재단'과 함께 이클립스 SDV 커뮤니티 밋업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클립스 SDV 커뮤니티 밋업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BMW, 현대모비스, 보쉬(BOSCH)의 자회사인 ETAS 등 SDV 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핵심 기업 관계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체제(OS), 통신 등 차량 업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반 기술인 '비차별화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표준화된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발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차

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사용자 경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차별화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돋는 주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성과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LG전자와 함께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S-CORE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S-CORE는 중복 개발 방지, 제품 납품 주기 단축, 안전성 강화 등을 목표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중 약 70%를 차지하는 비

차별화 영역 소프트웨어의 공용화·표준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자동차 한 대에는 1억 줄 이상의 소프트웨어 코드가 들어가며 SDV 시대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업계는 표준화를 통한 막대한 개발 리소스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LG전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이끌고 있는 풀피리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풀피리는 S-CORE를 기반으로 한 비차별화 영역 위에다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차별화 솔루션을 추가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돋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LG전자는 축적된 소프트웨어 역량과 폭넓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SDV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며 SDV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조직 활성화·책임경영 강화

대한항공이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조직 활성화와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올해 초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한 이후 첫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한 만큼 이번에는 소규모 인사를 진행했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사는 총 20명 규모로, 김해룡 상무 외 1명이 전무로 승진하고, 구은경 수석 외 17명이 신임 상무로 선임되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했

다고 밝혔다. 동시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승진시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절대 안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항공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진행했다. 이준한 수석 외 5명이 신임 상무로 선임되었다.

/양성운 기자